

# “전문화·지역상품·수제품이 살길”

## 고성미래포럼 주최, 박원순의 희망열차 좌담회 ... “복합화력발전소 바람직하지 않아”

우리 사회를 희망으로 바꾸는 활동을 펼치고 있는 ‘희망제작소’가 지난 16일 동해안 최북단 고성군을 방문해 주민들과 ‘농촌을 살리는 마을 만들기’란 주제로 좌담회를 가졌다.

이날 행사는 희망제작소가 창립 5주년을 맞아 도내 주요 도시를 순회하는 2011 희망 나눔 프로젝트 ‘박원순의 희망열차’ 사업의 일환으로 성사됐으며, 고성군 좌담회는 고성미래포럼(대표 이동균)이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오후 1시 고성군여성회관에서 30여명의 주민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좌담회에서 희망제작소 박원순 상

임이사는 “농촌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전문화와 지역상품, 수제품 위주의 상품 시장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원순 상임이사는 질문답변 시간을 통해 최근 거론되고 있는 복합화력발전소 사업에 대해 “석유나 석탄은 30년이면 끝나는 에너지원으로 고성지역에 들어오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는 또 “이제는 전력의 분권화가 필요하다”며 “독일 남부지역에 가보면 시민에너지 발전소가 있는데, 고성지역도 소수력발전이나 바이오매스, 가축분뇨, 태양광 등을 이용해 전력을 생산하

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박원순 상임이사는 청소년 문제와 관련 “공교육이 붕괴되는 상황이지만 교장공모제나 방과후학교 등 좋은 제도도 있다”며 “중요한 것은 입시를 위한 경쟁 중심의 교육이 아니라 사람의 기본을 만드는 인성교육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사회를 맡은 이동균 고성미래포럼 대표는 “오늘 자리가 비록 미약하지만, 앞으로 하나씩 그림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며 “다음에는 좀 더 많은 주민들과 함께 좋은 시간을 가졌으면 한다”고 했다. 최광호 기자



지난 16일 고성미래포럼이 마련한 희망제작소 박원순 변호사의 ‘농촌을 살리는 마을 만들기’ 좌담회에서 박원순 변호사가 강의하고 있다.



**고성군의회 사업장 현지시찰** 고성군의회는 지난 19일부터 25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제212회 임시회를 열고, 주요 사업장 현지시찰 등의 활동을 벌이고 있다. 사진은 지난 20일 재활용품 선별 기간제근로자 사역장을 둘러보는 모습. 박승근 기자

### “폐휴대폰으로 사랑을 전해요”

#### 고성군, 수거·판매해 소년소녀가장 지원

고성군은 최신 휴대폰의 보급에 따라 버려지고 있는 구형 휴대폰을 수거 판매해 소년소녀가장 등 어려운 학생들을 돕기 위해 폐휴대폰 자원화 캠페인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군은 군청 실과소 및 읍면에 폐휴대폰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고 오는 7월 31일까지 폐휴

대폰과 폐배터리, 충전기 등 3개 품목을 수거하고 있다.

이렇게 모아진 폐휴대폰은 어린이재단 강원지역본부로 보내 매각한 뒤 도내 소년소녀가장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을 지원하는 예산으로 사용된다.

최광호 기자

## 4만명의 CE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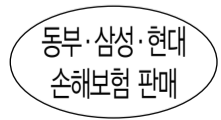


# 삼성생명 컨설턴트

삼성생명 CEO는 1명이 아닙니다  
삼성생명에는 금융전문 컨설턴트로 활동하는 4만명의 CEO가 있습니다  
당신도 4만 삼성생명 CEO의 일원이 되지 않으시겠습니까?

- 모집 요강**
- 지원자격 : 만 20세 이상의 남녀
  - 지 역 : 고성군
  - 선발절차 : 직무설명회 ▷면접▷교육▷등록

삼성고성보험대리점  
☎682-4480



#### 입사상담

- ◇김양희 010-3382-4011
- ◇김지윤 010-4311-4985
- ◇문순선 010-4769-2868
- ◇원정숙 010-9243-2575
- ◇유수현 010-7169-6594
- ◇유은미 011-376-1752
- ◇이순성 010-4654-5659
- ◇이춘옥 010-8798-4330
- ◇정웅실 010-7681-4309
- ◇정춘자 011-747-6123
- ◇허금녀 016-341-3762